전북 예술단체 손잡고 세계 무대로 향한다

문화공간 이룸-지평선 나린아트, 업무협약… 공연 공동기획 · 창작 지원 · 국제교류 확대 등 협력키로

전주와 김제를 대표하는 예술단체 두 곳이 손을 맞잡고 지역 공연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문화공간 이룸(대표 이윤정)과 지평선 나린아트(대표 서승아)는 지난 8일 전주시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공연 공동기획과 창작 지원, 국제교류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예술가 창작공간 제공 △공연 및 예술제 공동기획 △국내외 예술인 레지던시 운영 △문화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문화공간 이룸은 전주에 위치한 민간 공연장으로, 2018년 개관 이후 청년 예술가들과 지역 연주자들을 위한 창작 무대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공연장과 연습실, 전문 장비를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역 공연예술의 성장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윤정 대표는 "이번 협약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의 공연예술 네트워크를 튼튼히 연결하는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다.

지평선 나린아트는 김제 만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작예술단체로, 도시보다 문화시설이 적은 농촌에서도 예술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공간 이룸(대표 이윤정)과 지평선 나린아트(대표 서승아)는 지난 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표 서승아 씨는 일본에서 전통 예술인 '부토'를 전수받고, 이를 한국 전통과 결합한 '지신무'라는 독자적인 공연으로 발전시켰다.

서 대표는 "지역과 세계를 잇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김제가 국제 예술과 만나는 창조적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제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청소년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교육도 공동 기획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예술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의 문화공간과 예술가가 손잡고 전북을 넘어 세계 무대로 도약하려는 이번 협약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문화공간 이룸(010-4006-8825 / www.erumart.co.kr), 지평선 나린아트(010-7322-2188)로 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미래문화콘텐츠 인재 양성 나선다

전주문화재단, 22일까지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오는 22일까지 미래문화콘텐츠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래문화콘텐츠 아카데미'는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융합한 콘텐츠 창작 교육을 통해 미래문화도시 전주의 핵심 가치인 '전통과 미래의 융합'을 실현할 창의적 기획자와 콘텐츠 창작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7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19회차로, △언리얼 엔진 실습 △인터랙티브 퍼포먼스 제작 △프로젝션 맵핑 등 실무 중심의 기술 교육과 창작 기획 역량을 높이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수료생 중 5개 우수팀을 선정해 팀당 10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이 제공된다. 또한 10월 1~19일까지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리는 '미래문화축제 팔복' 기간 중 결과물 전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수료자에게는 향후 전주시 문화도시 콘텐츠 기획사업 참여 기회, 미래문화콘텐츠 창업지원 및 기업 육성사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진로 확장 가능성도 열려 있다.

모집 인원은 총 15명이며, 미래문화콘텐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교육시스템(http://jedu.jica.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전통과 기술을 잇는 융합형 창작 인재들이 지역 문화 생태계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길 바란다"며 "문화도시 전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예비 기획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창작예술학교' 참여 예술가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오는 14일까지 교육하는 예술가 양성과정 '창작예술학교'에 참여할 예술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작예술학교'는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기반으로 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이다. 6주간 전문가의 강연과 워크숍을 통해 진행되며, 실질적인 콘텐츠 기획과 교육 접근 방식을 함께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 개발된 콘텐츠 가운데 10개를 선정해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실습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선정된 콘텐츠는 팔복예술공장에서 운영중인 초등 예술놀이 정규 프로그램에 배정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현업 예술가로, 최근 3년 이내 예술 활동 이력이 있다면 나이, 전공, 예술 분야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14일까지며, 접수 방법과 제출 서류는 전주문화재단 또는 팔복예술공장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예술교육팀(063-283-92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부안군문화재단, 부안 예술인 단체전 '하이라이트 인 서울' 개최

부안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인사아트에서 부안 지역 예술인 단체전 '하이라이트 인 서울'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작품 발표를 넘어, 지역 예술인들이 서울이라는 주류 미술시장에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실험하고 검증받으며, 지역과 수도권 예술계 간의 교류를 시도하는 실질적인 플랫폼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서울전시는 2023년부터 지역예술인의 창작지원 및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재단의 지원사업 '하이라이트'의 일환으로 올해 사업에 선정된 7인의 시각예술인 작품으로 개최된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서울은 여전히 기회의 문턱이자, 외부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 같은 공간"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부안 예술의 '지금'을 소개하고, '부안'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창작 배경으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묻고자 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전시에는 △강의석(도예), △박경식(설치미술), △안미정(도예), △오현영(일러스트), △이부안(회화), △전은숙(압화), △전정권(회화) 등 총 7인이 참여하며, 각기 다른 시선과 방식으로 지역성과 동시대성을 탐색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오프닝은 16일 오후 4시에 열리며, 작가들이 직접 작품을 소개하는 아티스트 토크도 함께 진행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찾아가는 타이베이 도서전 9~10일 개최

문체부 · 출판진흥원, 국내 출판사 20곳 · 현지 출판사 · 유통사 64곳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이재선, 이하 출판진흥원)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찾아가는 도서전'을 개최하고, 케이-북(K-Book)의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출판진흥원은 국내 출판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도서전'을 운영해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일본, 인도네시아, 스페인에서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지난 5월 체코와 폴란드에서 개최되었다.

'찾아가는 타이베이 도서전'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간 코트야드 메리어트 타이베이(Courtyard Marriott Taipei)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위즈덤하우스 등 국내 출판사 20곳과 대만의 현지 출판사 및 유통사 64곳이 참가해, 270건이 넘는 수출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 101종의 위탁도서 수출 상담은 에릭 양 대행사가 전담한다.

이번 도서전은 참여사의 수요에 맞춰 수출 상담회 형식으로 운영된다. △출판사 및 유통사 발굴 및 수요 중심의 연계 △출판 콘텐츠 수출 전략 교육 △현장 통역 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대만 출판시장 동향 세미나 등이 마련되어, 양국 참여사 간 활발한 수출 상담을 지원한다.

대만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주요 출판 수출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지금까지 수출된 대표적인 도서로는 '불편한 편의점'(김호연),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미예), '아버지의 해방일지'(정지아) 등이 있다.

출판진흥원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출판시장은 '문화이용권' 제도 도입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전자책·오디오북 시장의 확대에 힘입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판진흥원은 도서전 종료 후에도 케이-북(K-Book)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행사에 전시된 도서를 타이난 세종학당과 대만 국립 중앙도서관에 기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도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지 독자층 확대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